

세계경제연구원 후원회원님 귀중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에도 저희 세계경제연구원을 평소 아끼고 성원해주시는 회원님의 발전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신년 인사와 함께 이달 초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취임에 즈음하여 제 인사말씀을 아울러 올리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세계질서는 급변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 전환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도전의 시기에 ‘세계를 알아야 미래가 보인다’는 저희 연구원의 설립자이자 명예 이사장으로 계속 이끌어 주실 사공 일 박사님의 모토, 그리고 ‘글로벌 리더들의 해안과 통찰력을 공유·확산함으로써 우리 경제와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는 세계경제연구원의 설립 비전은 어느 때보다 그 의미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역사적 변혁시대에 이사장 직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오로지 회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그리고 지도편달 없이는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저는 미국 유학을 마친 후 1980년대 초 미시간주립대학 교수에 이어 세계은행(World Bank) 금융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근 15년간 재임하였습니다. 외환위기가 발발한 20년 전 한국정부 초청으로 귀국하여 경제부총리 특보와 국제금융센터 원장을 맡아 위기극복에 동참했고 이어서 우리금융그룹 부회장, 딜로이트 코리아 회장, 포스코 이사회 의장 등 민간 기업에서 활동한바 있습니다. 지난 10년간은 대외특명대사인 국제금융대사, 금융위

원회 위원장,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공직을 수행해왔습니다. 부족하나마 국내외 경험을 통해 쌓은 국제경제와 금융투자 분야의 식견과 글로벌 네트워크가 저희 연구원의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되리라는 생각으로 이사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연구원은 당면한 융합시대에 걸맞게 폭넓은 연관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님들의 관심과 니즈에 더욱 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미 금년 1~3월 중 세계경제금융제 최고 연사 5분의 특별강연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1월 15일, 세계적 경제예측 권위자인 Allen Sinai 박사, 1월 24일, 세계 굴지의 연기금인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 김수이 아시아태평양 대표, 2월 19일, 영국 Financial Times(FT)의 Henny Sender 수석칼럼니스트, 3월 26일, 미국 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CEA) 의장을 역임한 Martin Feldstein 하버드대 석좌교수, 그리고 연이어 27일, Nobel경제학상 수상자인 Robert Merton MIT 석좌교수의 특강입니다.

지난 25년간 저희 연구원을 이끌어 오신 사공 일 박사님의 탁월한 업적을 이어가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쪼록 세계경제연구원에 주어진 미션을 수행해 나가기 위한 여러 활동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더욱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해년 새해 벽두에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전광우

전 광 우 드림